

“염증성 장질환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입니다.”

▶ 염증성 장질환 소개(Inflammatory Bowel Disease)

- 소화관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
-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계속 반복되는 재발성 만성질환
- 질환의 원인과 완치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,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약이 개발되어 사용 중

- 크론병이란?

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, 증상의 악화와 재발이 반복되며 설사, 복통, 식욕 감퇴, 미열 등이 흔한 증상

- 궤양성 대장염이란?

궤양성 대장염은 소화관 중 대장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, 염증이 직장으로부터 위쪽 대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며, 설사, 혈변, 복통 등의 증상과 식욕 감퇴, 체중 감소, 피로감 등을 유발

▶ 염증성 장질환의 다양한 증상

장 내벽의 염증과 궤양 발생으로 수분 흡수 능력이 감소하므로 가장 먼저 설사가 나타나며, 장 내벽의 궤양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면 혈변, 쥐어짜는 복통과 함께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식욕 및 체중이 감소하며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됨

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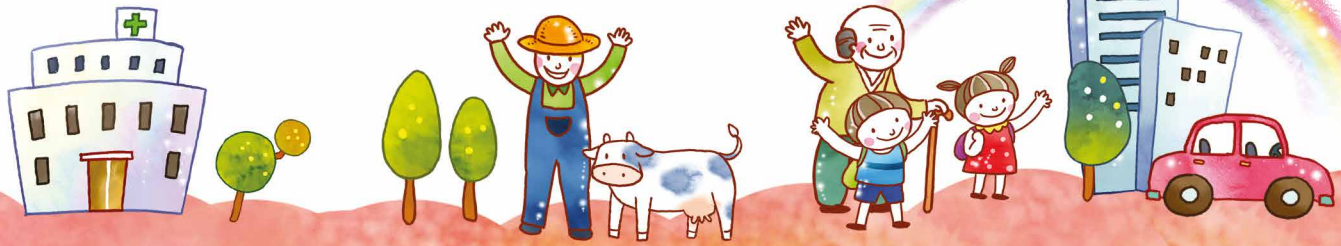
1. 염증성 장질환은 갑작스러운 복통, 설사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2. 정기적인 병원 검진과 갑작스럽게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조퇴나 외출, 결근(결석)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3. 술 또는 특정 음식에 따라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회식 등 식사 모임에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.

▶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해 양보해주세요

I Can't Wait 카드: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복통,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인해 긴급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양보를 부탁하는 대한장연구학회 인증 염증성장질환 환자 안내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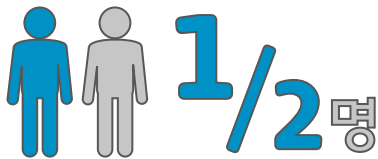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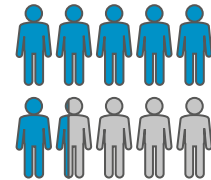
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어려움



▶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어려움

전체 응답자 중 63.1%는 '질환으로 인해
학업이나 업무 또는 가사에 지장을 받는다'라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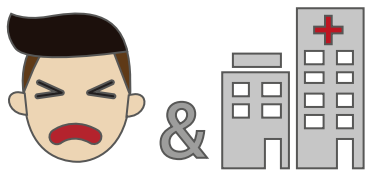
63.1%



2명 중 1명은 6개월에 최소 3번 이상의 결석·휴가
(51.4%)를 냈거나 조퇴(50.9%)를 한 적이 있음

젊은 1020 세대 환자가 가장 많이 결석·휴가(46.9%)를
사용했고, 조퇴(41.1%)를 한 것으로 나타남

1020세대



결석이나 휴가 및 조퇴를 사용해야 했던 가장 큰
이유로는 '학습·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증상 (결석
·휴가 52.1%, 조퇴 58.6%)'과 '외래 진료(결석·휴가
28.9%, 조퇴 30.2%)'의 순으로 꼽음

33%

환자 33%는 본인이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밝히지 않음

질환을 주위에 밝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
승진 또는 학업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
응답한 비율이 37.2%로 가장 높음

37.2%